

부활 제3주일

제1독서 : 사도 5, 27-32, 40-41  
제2독서 : 묵시 5, 11-14  
복 음 : 요한 21, 1-19

# 순정이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요한 21, 16)

## 강론

###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박종탁 신부/둔울동성당

사랑은 만남이요, 사귄이요, 하나됨입니다. 떨어져 있으면 만나고 싶고 그리하여 전화하고, 편지하고…… 만나면 떠들어대는 연인들 모습처럼 끊임없이 주고 받는 만남 속에서 사랑은 커가고 마침내 하나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과 만남, 대화, 즉 기도를 통하여 사랑은 커가고 성숙되어 갑니다. 그러기에 피정이나 성체조배, 주일미사 참석 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하느님과의 모든 대화. 즉 일상기도의 노력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고 그 의미가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하느님과의 만남이요, 그것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기쁨과 평화, 자비와 용서의 은총선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신 주님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시어 기적을 행하시고 식사를 같이 나누시는 등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실망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다는 기쁨과 믿음 뿐만이 아니라 끊어졌던 주님과 사랑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번씩이나 물으심으로써 수난과 죽음에 이르는 동안 일그러졌던 베드로의 사랑을 되새기기도 하지만 당신께 대한 확실한 사랑을 확인하시면서 또한 제자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기도 하십니다.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은 그분께 대한 확실한 믿음과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해마다 맞는 부활이지만 그분을 믿는 신앙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도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만큼?” 끊임없는 하느님과의 만남과 대화와 기도를 통한 삶으로 주님께 응답하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라고 말입니다.

## 소리

### 한 끼 굶어 부자(?)되자

서울대교구는 오늘까지 북한동포를 위한 국제 단식 모금운동을 벌인다고 한다. 한 끼 이상을 굶어 성금을 모으는 이 운동에는 교황님을 비롯해서 해외 유명인사와 국내 주요 종교 지도자들이 동참하리라고 한다. 우리 북녘 동포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인 상황이고 보니 부끄러운 유명세를 무는 것 같아 찝찝하기만 하다.

개인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어쩌다 과음을 한 다음날은 한 끼를 걸러도 배고픔을 못느끼는게 보통이다. 그런데 한 해에 두 차례 한 끼를 굶을라치면 어쩌나 배가 고평지 모르겠다. 예수님의 고통이나 어려운 이웃 생각도 배고픈 유혹 앞에 몇 차례고 주저앉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게 나만의 것은 아니리라 싶어 위안을 삼기도 한다.

은 나라가 당하는 경제위기에 모두들 신경이 곤두선 요즘, 평소에 별말이 없던 특수목적의 이차헌금 때문에도 설왕설래가 있다. 이유인즉 우리도 어려운데 꼭 그래야 하는 것이냐는 것이다. 갑자기 일터를 잃고, 봉급이 줄어들고, 물가는 오르고 하니 짜증이 나는 것도 우리가 아니리라 싶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쿵 한 쪽도 나누어 먹으라는 조상들의 가르침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2천년 대희년을 맞아 우리 교구는 세상의 복음화를 목표로 「쇄신·선교·이웃사랑」 실천운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그렇다. 희년의 의미가 기쁨과 해방에 있을진대 우리는 정말로 달라져야 하고, 그 모습이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 가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절제하고, 그 몫을 나누는 삶이 지금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 (甲)

### 순정이 산책



“복은 굶는자, 남은 실직자”

성서의 오솔길

하바꼭서

박찬길 신부/사목국장

하바꼭 예언자는 아시리아가 망하고 신흥 세력 바빌론이 강대국으로 등장한 시대에 예언 활동을 한다. 시리아와 팔레스티나 전역의 패권을 장악한 바빌론은 유다를 침입하여 괴롭히기 시작한다. 그 결과 예루살렘은 기원전 597년에 침략을 받게 되었으며 기원전 587~6년에 와서는 함락되어 유다는 패망의 길을 걷게 되었다. 하바꼭서는 바로 이와 같은 비극적인 역사의 전환점에서 생겨난 작품이다.

하바꼭 예언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진 바가 없다. 다니엘 14장 33절에 같은 이름의 인물이 나오지만 동일한 인물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이 예언서는 전체가 3장으로 된 매우 짧은 것으로 하느님의 대답으로 시작하여(1~2장)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 또는 시편(3장)으로 끝을 맺는다.

하바꼭은 하느님께 불충한 유다에게 하느님의 징벌

이 내릴 것을 인정하면서 한편으로 의문을 제기한다. 그것은 유다보다도 더 많은 악을 행하는 나라들로부터 유다가 압박을 당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다. 그러나 하바꼭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가르친다.

- 1) 불법과 부정한 행위는 절대로 승리하지 못한다.
- 2) 하느님은 죄악을 결코 방관하지 않으신다.
- 3) 의인은 신앙을 지킴으로써 살게 된다(2장 4절).
- 4) 주님은 온 세상의 하느님 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나타나기를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신앙인은 행복하다는 것이다(2장 20절).

바울로 사도는 하바꼭 2장 4절을 깊이 명상한 끝에 신앙의 절대적 가치 즉 신앙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무이한 길임을 강조하게 된다(갈라 3, 11; 로마 1, 17; 히브 10, 38 참조).



1998년 성령의 해

“새 날 새 삶”

봄을 맞이하기 위해 화단을 정리하면서 화분의 흙을 갈아주는데 시커멓고 낡은 화분을 쏟다가 놀라 손을 멈추었다. 버려진 것처럼 보이던 그 화분 속에 이름 모를 대어섯개의 뿌리가 통통하게 물이 올라 한창 생명을 부풀리고 있었다.

어떤 신성한 것을 들추어 낸 듯, 경이로운 마음까지 들어 흙을 갈아 다시 심은 다음 물을 주어 햇살 따뜻한 곳에 놓아두었다. 그날 이후 흑시 짝이 낫는지, 도 대체 어떻게 생긴 놈이 나올지 궁금하기 짝이 없어 안부 드리기를 열심히 하였다. 열흘도 더 지난 어느날, 아! 뺨뺨히 얼굴을 내민 저 녀석들! 여섯 군데가 뽀족한 것을 보니 한 놈도 죽지 않고 모두 살아 드디어 출세(出世) 하였구나. 아직 어떤 꽃인지 알 수 없으나 죽지 않고 살았다는 그 사실만으로 벽찬 기쁨 가득했다. 그래, 저 녀석들도 이제 다시 새날 새삶을 시작하

는구나! 춥고 어두웠던 긴 겨울에서 희망의 봄으로 새롭게 탄생했구나. 추위와 한파 속에서도 생명은 움트듯 죽음의 고통 뒤엔 부활이 있고, 부족한 삶이었다는 자각 뒤에는 언제나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새날 새 삶이 있다.

우리도 정성스레 마음 받을 준비할 때, 따뜻한 숨결처럼 성령께서 그 안에 새 생명을 잉태시키시고 새사람으로 태어나게 해 주실 것이다.

〈나부터 새롭게〉, 이 충만한 생명의 시간에 나부터 새롭게 새 인생의 가치를 점검하고 높이 승화시켜 참다운 인간, 하느님께서 귀하게 여어주신 내 본래의 존엄성으로 돌아가도록 따듯이 돌보시는 성령과 함께 노력해보자. 희망의 어머니 마리아께서도 우리의 새날 새 삶을 위하여 전구해 주실 것이다.

기쁘고, 온정의 대축제 2000년 대희년까지 1년 8개월 4일 남았습니다.

- 가톨릭 신학원에서 냉·온풍기를 기증해 주실 은인을 찾습니다. 성서교실 수강자 모집합니다. (0652) 75-5879
- 천주교 우리농촌 살리기의 일환으로 가톨릭 농민회에서 생산한 좋은 쌀과 잡곡을 공급해 드립니다. (0652) 85-4205

**숲정이 익스프레스**  
**일반이사짐, 용달**  
 사다리차 · 인부대기 · 포장이사  
 251-2024  
 ☎ (0652) 246-2024  
 223-2024  
 이 한 주(토마)

**동전주주유소**  
 <품질좋은 쌍용>  
 성실, 신용으로  
 시내 전지역 신속배달  
 소양, 진안 방면 초입  
 (우아동 파출소옆)  
 황연옥(요섭) · 윤성자(수산나)  
 ☎ (0652) 245-5123, 5134(요일상사)

**LG 에어컨 예약**  
 98년 신제품 15% 할인+6개월  
 무이자 할부  
 사은품 PCS 증정  
 냉난방기기 상담 환영  
 할부 대금은 5월부터 불입  
 식당용 냉장고 취급  
 원 승 연(도밍고)  
 ☎ (0652) 241-2000

**전주문구센터**  
**NEO DADA**  
 1층 악세사리 펜시  
 2층 학용품 사무용품 컴퓨터소모품  
 3층 화방용품, 제도, 측량전문용품  
 전북대앞 본점  
 원 수 판(아고버)  
 심 경 이(마리아)  
 ☎ 77-0079, FAX 77-0720

잠깐

☞ 궁금해요

주일미사 시간표를 보면 토요일 특전미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 특전미사는 주일날 바빠서 미사를 참례할 수 없을 때에 토요일 오후에 바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바쁜 일도 없는데 날씨가 덥다고 해서, 혹은 어디 놀러가기 위해서 토요일 특전 미사에 참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가 산업화되고 상업이 활발해지면서 주일날에도 일을 해야만 하는 교우들이 많이 있는데, 특전미사는 바로 이 교우들을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즉 내가 출근하지 않으면 기계가 돌아가지 않아서 다른 모든 일이 중단된다거나, 또는 내가 주일에 일하지 않으면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는 경우에, 토요일에라도 미리 미사를 하고서 주일에 일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 특전미사의 본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특전미사의 그런 뜻을 잊어버리고, '특전미사도 주일미사'라는 생각만 하고 무조건 토요일에 가서 미사참례를 하는 교우들이 꽤 있는데, 그것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행동입니다. 특히 주일날 가족들과 함께 야외로 놀러 가기 위해서 토요일 특전미사를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들이 함께 즐기는 것도 좋지만 특전미사의 본래의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원래 특전미사는 놀러 가는 사람들을 위한 미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일에 너무나 치중해서, 주일 미사를 그냥 얼렁뚱땅 해치워서는 안되겠습니다.

☞ 교구·제 단체 소식

1.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1일피정 : 4월 27일(월), 오전 9시 30분, 성요셉동산 양로원
2. 레지오 단원교육 : 4월 27일(월), 오후 7시, 효자동 성당
3. 교구사제양성후원회 월례미사 : 4월 27일(월), 오전 10시 30분, 가톨릭센터
4. 새사제 연수 : 4월 30일(목), 오전 10시, 교구청
5. 성모의 기사회 월모임 : 5월 2일(토), 오전 10시, 효자동 성당
6. 기억할 사제 : 4월 30일(목), 김현배(발도르메오) 주교, 37주기 5월 3일(목) 김현배(스테파노) 신부, 53주기
7. 천호 피정의 집 피정 : 7월 7일(목), 주제 - 가정과 성사생활, 지도 - 이재후 신부 5월 9일(토)~10일(일), 주제 - 가정의 성화, 지도 - 범석규 신부

나는 민들레에서 배웠습니다.  
 날개를 타고 높이 올라갔다가  
 장애물 많은 곳에 내려앉는 까닭을  
 대지 위에 떨어져  
 밭에 밟히고  
 아름다움을 잃고 죽음으로써  
 관모(冠毛)를 타고 나는 모든 세대에  
 새로 삶을 준다는 것을



요심이 (1290) 김병오



**사무원 채용 공고**  
 대상 : 남, 여 불문 ○명, 교동학교 졸업 이상 조건 : 영세한지 3년 이상인 자, 운전면허 소지자, 전산 사무 처리 가능한 자  
 구비서류 :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분당 신분증, 추천서, 운전면허증 사본, 세례증명서 각 1통  
 접수마감 : 5월 1일 오후 5시까지(서류심사 후 개별 통지함)  
 문의 및 접수처 : 복자성당 사무실 (0652) 86-3455

**제2회 인권학교~전주**  
 일시 : 1998년 4월 30일~5월 29일  
 장소 : 전주 숲정이성지 사회관 (구 해성고)  
 주최 : 천주교 정의구현전주교구 사제단  
 문의 : (0652) 76-1253

결혼상담소  
**좋은 날**  
 초혼, 재혼, 인연을 맺어드립니다  
 상담 : 유 춘 주(세라피나)  
 전동 시외버스터미널 옆  
 삼성전자 2층  
 ☎ 87-3325, 88-3325

**위니아 에어컨**  
 18%~10% 할인 무이자 6개월  
 김치생장고 위니아딤채,  
 공기청정기, 제습기  
 위니아 정유점(대진신협 사거리)  
 ☎ (0681) 535-5510, 080-500-0200  
 (0652) 224-7080  
 변효석(루도비코)  
 박유덕(루 시 아)

**예수회 성소모임**  
 때 : 5월 2일 오후 5시  
 장소 : 서강대학교 이냐시오관 213호  
 대상 : 예수회 성소에 관심있는 젊은이, 사제지망(대학재학이상), 평수사지망(교교졸업이상)  
 문의 : (02) 719-1803, 705-8575

**부산 성베네딕도 수녀원 성소피정**  
 일시 : 5월 9일(오후 4시)~10일(오후 6시) 장소 : 부산 광안리 본원 준비물 : 미사도구, 세면도구, 필기구 문의 : (0652) 244-0094(호성동수녀원), (051) 753-1131~4(수녀원 본원)

# 서전주지구 본당소식

**삼천동** 주임신부 225-0397 사무실 225-0396 주임신부 오성기  
F A X 222-4954 수녀원 226-3487 사목회장 심성택

**◎ 용기와 희망으로 살아갑시다!**

1. 모임: ① 전례부, 홍보부, 테니스회 - 교중미사 후  
② 동그라미 불령회 - 27일(월) 후 8시  
③ 사목회 상임위원회 - 1일(금) 후 8시  
④ 레지오 꾸리아 - 3일(주일) 교중미사 후
2. 성전기금 마련현금: 오늘 2차현금의 납입
3. 책자 홍보: 바로로 수녀회에서 책자홍보 및 판매 있음
4. 축! 혼인: 오늘 12시 30분  
신랑 - 박태학, 신부 - 김혜정(나탈리아)
5. 고백성사: 언제나 미사 전후 20분씩 불수 있음
6. 수녀님 교육: 27일(월)~29일(수) 부산 본원에서 전체교육
7. 참회미사: 29일(수) 저녁미사중에 있음
8. 청년회: 넷째주 주일 저녁미사 후 모임 \* 35세이하의 미혼남녀
9. 특별 헌금: 금주 봉헌자 3명 170,000원
10. 주님 축복!: 나눔잔치에 애쓰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1. 교무금 월납제: 교무금 봉헌에 감사드립니다.
12. 금주 전례: 해설 - 김 철, 독서 - 김래연(리노) 부부  
봉헌 - 이봉구(요셉) 가정
13. 차주 전례: 해설 - 박종구, 독서 - 임동주(안셀모) 부부  
봉헌 - 이중현(프란치스코) 가정

□ 지난주 봉헌금: 1,689,380원 □ 교무금: 2,025,000원

**회산동** 주임신부 221-9843 사무실 221-9842 주임신부 이설우  
F A X 221-9842 수녀원 225-3675 사목회장 서동호

**◎ 주님께서 저를 구하셨으니, 제가 당신을 높이 기리려 하나이다.**

- ◎ 본당 화재사고에 도움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음반보급 - 대전 삼성동 성당, 안양 명학 성당
1. 예비신자 교리: 28일(화) 후 8시, 29일(수) 후 8시
2. 성가 연습: 28일(화) 후 8시 3. 섬시간: 5월 1일(금) 후 7시 30분
4. 레지오 단장모임: 1일(금) 후 8시
5. 구역 미사: 8일(금) - 화산2A 6 사목회: 2일(토) 후 7시 30분
7. 차주 모임: ① 꾸리아 - 전 9시 ② 울드레야 - 낮미사 후  
③ 편집분과회의 - 저녁미사 후 \* 성소주일 2차현금이 있음  
\* 음반보급 - 서울 월곡동 성당(본당 신부님 미사 집전)
8. 유아 세례: 16일(토) 후 2시 30분 \* 5월 10일까지 사무실에 접수
9. 호도관광: 5월 11일(월) 한국민속촌 \* 5월 3일까지 사무실에 접수
9. 청소년 봉사: 5월 2일(토) - 겸손하신자의 모후Pr.
10. 폐품 정리: 5월 2일(토) - 사랑하을 모후Pr.  
\* 폐품을 가져오시기 어려운 가정은 사무실에 접수 바람.
11. 금주 전례: 새벽 - 유희정, 낮 - 홍정희, 저녁 - 정인자
12. 차주 전례: 새벽 - 곽순옥, 낮 - 이영순, 저녁 - 이영숙
13. 음반보급 활동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4. 첫염성체 교리: 5월 13일(수) 후 4시 부모님과 함께 오십시오.  
교리 - 매주 수, 목, 금 \* 학원 시간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948,350원 □ 교무금: 1,470,000원  
□ 지난주 신축헌금: 1,171,000원

**서신동** 주임신부 74-9261 사무실 74-9260 주임신부 오현택  
F A X 74-9260 수녀원 74-9262 사목회장 유준웅

**◎ 예비신자 배가운동에 우리 모두 적극 참여합시다!**

- ◎ 오늘: 오수성당을 위한 2차현금
1. 금주 모임: ① 애령회, 방주회 - 공식미사 후  
② 청년공동체 - 후 8시, 4회의실
2. 주간 모임: 엠마우스 - 29일(수) 후 7시, 2회의실
3. 차주 모임: 요아킵, 안나화 - 공식미사 후  
\* 차주 - 성소주일 2차현금, 사제양성후원회비 납부일
4. 유아 세례: 30일(목) 후 7시 30분 \* 28일(화)까지 사무실에 신청
5. 성모의 밤 행사: 2일(토) 후 8시 \* 북한주민을 위한 2차현금
6. 북사단 성소주일 행사: 5월 3일(차주) 전 9시, 소양 경로수녀원
7. 첫염성체 교리: 5월 6일~6월 13일 \* 5월 2일(토)까지 신청바람  
\* 어머니 모임 - 5월 3일(차주) 공식미사 후, 지하성당
8. 신앙서적 바뀌이기: 5월 10일(일) 읽고난 책 또는 책대금 접수바람
9. 조당자 합동 혼인식: 5월 21일(목) 후 7시 30분 \* 6일(목)까지 신청
10. 전입가정 환영!: ① 이지은(소피아) T. 72-1413, 광진A 103/107  
② 양두현(보나벤타라) T. 251-6540, 현대A 102/303
11. 축! 혼인: 오늘 12시, 성당, 신랑 - 이철수씨 차남 이상호(베드로),  
신부 - 송영섭씨 장녀 송선화(루시아)
12. 독서: 금주(새벽) - 최성복, 유인숙, 차주 - 김경상, 강영순  
(공식) - 남철우, 임영순, 차주 - 김옥기, 최유진
13. 미사 안내: 금주 - 인자하신 모후Pr., 차주 - 사랑하을 모후Pr.
14. 주차 안내: 금주 - 바다의 별Pr., 차주 - 화해의 모후Pr.

□ 지난주 봉헌금: 1,788,360원 □ 교무금: 2,431,000원

**용머리** 주임신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박기준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이규세

**◎ 주님께서 저를 구하셨으니, 제가 당신을 높이 기리려 하나이다.**

1. 모임: ① 꾸리아 - 오늘 공식미사 후  
② 요셉회, 사사회 - 오늘 공식미사 후  
③ 사목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④ 테니스 - 다음주 후 2시, 해성학교
2. 사순절 돼지 저금통(살찌워서): 사무실로 가져오세요.
3. 사순절 신앙생활 가족실천포: 사무실에 제출해주세요.
4. 봉성체: 매월 첫주 목요일 \* 미리 사무실에 신청해 주세요.
5. 성체감복, 참회예절: 매월 첫주 목요일 \* 많이 참여하십시오.
6. 영세자 재교육: 매월 둘째주 화요일 저녁미사 후  
\* 새신자 전원 참석하세요.
7. 성모의 밤: 5월 2일(토) 후 8시 \* 전신자 참석하세요.
8. 1인 1단체 가입을 의무화 합니다.
9. 차주 전례: 해설 - 김용선, 독서 - 하진호, 이현주
10. 청소년 봉사: 3, 4구역

□ 지난주 봉헌금: 1,201,700원 □ 교무금: 1,525,000원

**회자우전** 주임신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서석구  
보좌신부 226-0443 수녀원 223-0715 보좌신부 김경호  
F A X 226-1044 사목회장 박영근

**◎ 성전신축을 위한 목주기도 100만단 봉헌: 누계 - 857,490단**

1. 금주 모임: ① 사목회 - 저녁미사 후 ② 승리의 여왕Cu. - 전 9시  
③ 요셉회 - 공식미사 후 ④ 애령회 임원회의 - 공식미사 후  
⑤ 여성분과회 - 1일(금) 10시미사 후
2. 봉성체: 1일(금) 후 2시
3. 미납된 신축헌금과 식권대금은 속히 완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축! 혼인성사: ① 3일(일) 13시,  
신랑 - 윤여철씨 차남 윤형식(안드레아), 신부 - 이두언씨 차녀 - 이영이  
② 5일(화) 13시,  
신랑 - 최남규씨 장남 최민호(가브리엘), 신부 - 김홍군씨 장녀 김경희  
미사시간 안내: 평일: 월~금 - 전 6시, 화, 목 - 후 7시 30분,  
수, 금 - 전 10시, 토요일 후 3시 - 어린이미사, 토요일전 - 7시 30분  
주일 - 전 6시, 9시, 10시 30분, 후 7시 30분
6. 차주: 천주의 모친Cu., 사제양성후원회, 성체감복, 자모, 성모,  
성심회
7. 금주 전례: 해설 - 이진옥, 독서 - 정병태, 김춘애  
봉헌 - 임창수, 권정희 부부
8. 차주 전례: 해설 - 이종표, 독서 - 권오상, 허선영  
봉헌 - 전문기, 장선자 부부

□ 지난주 봉헌금: 3,011,450원 □ 교무금: 3,435,000원

**“쉬고 있는 교우들에게 숲정이를 전달합니다!”**